

“부대 운영에 종교차별 있을 수 없죠”



◇육군맹호부대장 박경서 장군이 도움을 준 부산 길상암 스님들과 법당 신축 현장에서 상량식을 가졌다.

육군 맹호부대장 박경서 소장이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법당 신축 불사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장군은 “사단장 취임 후 교회와 성당에 비해 법당이 너무 좁고 낡아서 사단법당으로서 구실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느낌을 들었다”며 불사 동기를 밝혔다. 또 “기존 법당은 어린이 병원 및 장애인 명상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축법당 개원식은 초파일 경할 계획이다.

▲어떤 동기로 법당 신축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2001년 11월 경 맹호부대 사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후 종교행사에 참석해 보니 교회(1994년 신축, 총 공사비 7억 5천만원)와 성당(1990년 신축, 총 공사비 1억 6천만원)에 비해 사단 법당인 호국 연호사(1977년 완공, 총 공사비 1280만원)는 너무 좁고 낡아서, 법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법당에 들어가지 못

하는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간 형평성 확보와 이를 통한 장병의 종교 생활 활성화를 위해 법당 신축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총 공사비를 약 3억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아직도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1억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 법사범담님은 부

무형의 전투력도 중요합니다. 이는 곧 조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을 사병들은 예전에 비해 개인적이고 낙담하는 지적이 있습니까.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군대 내 종교 활동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까?
-종교 행사를 통해 개인적이고 낙담한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이타적이고 강인한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호부대장 범담불사... “아름다운 지휘”

종교간 형평성, 신앙 생활 활성화 위해 결심

처민께, 저는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사실 주변에서 제가 법당을 짓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인근 지역 스님들이 감사를 뜻해 전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종교가 소중하다면 다른 종교도 소중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군대는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군대 내 종교간 교류 및 종교 활동 활성화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군대에서 종교활동은 자기 종교의 교세확장을 위한 발판이 돼서는 안됩니다. 또 장병들이 종교 시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외적 환경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즉 종교 행사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법당 신축불사도 이런 의미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43년 신행 노하우 “열심히...”

부산 감로사 정보명화 관음회장

18세에 시작된 불교와의 인연이 61세,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부산 감로사 정보명화 관음회 회장. 정회장이 접수를 받고 있는 자리 옆에는 늘 차와 차를 우리는 주전자와 준비되어 있다. 차를 유독 좋아하는 정 회장이 “이렇게 좋은 차를 혼자 마시는 게 아까워서” 시작한 일이다. 바쁜 접수 틈틈이 차 한잔을 건네는 여유를 잃지 않은 정회장은 많은 신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상담자이자 경험을 토대로 신행의

“어디 가서 삼천배를 하고, 선방에 앉아 몇 년을 공부해도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도 짓고, 지해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후 정회장의 신행은 더욱 철저해졌다.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에 한반도 빠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독경, 사경, 참선 등은 일상이 되었다. 또한 감로사의 굶은 일은 도맡아 했고, 어려운 형편을 보던 아까운 것 없이 보시하는 실천을 보였다. 지금도 감로사 주지 혜

삼천배, 독경, 사경, 참선은 일상생활

어려운 형편 보면 보시행 실천



◇부산 감로사 관음회 정보명화 회장(왼쪽 첫번째)이 기도접수를 받고 있다.

갑잡이가 되어주는 소중한 동반이다.
어릴 적부터 여러 절을 다니며 불교의 진의를 알고자 했던 정회장이 감로사와 인연이 된 것은 아홉 살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30대였다. 삼천배 참회기도 중 자운스님의 차 시중을 들면서 은근히 스님의 법문을 기대했던 정회장의 마음을 아셨을까? “네가 앉은 그 자리가 법당이고 내가 부처다”라는 자운스님의 한 말씀이 여기 저기 찾아 헤매던 마음을 접을 수 있게 했고, 더욱 신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이 관장으로 있는 용호복지관에 손녀, 딸, 사위 구좌까지 개설해 후원을 할 정도다. 가족들에게 복덕을 짓는 씨앗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생활과 수행을 둘로 보지 않는 정회장의 철저한 신행은 관음회 회장 7년째를 맞으며 회원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카드를 작성하면서 혹은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축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것이 저의 남은 공부이고 이 자리

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향이라 믿고 있어요.”
처음엔 말을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던 정회장의 도량 자량이 끝날 줄 모른다. “지금 불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도량에 행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주지스님이 계시니 너무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공부해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도가 드로 눈길을 돌려 축원을 이어갔다.
전미희 기자

광동학원, 운허스님 존상 건립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8일 오전 11시 광동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설립자인 운허 스님 존상(사진) 제막식을 거행한다. 광동학원의 불교학교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건립되는 운허 스님 존상은 브론즈 재질로 좌대 높이 250cm, 전신좌상 180cm이다.
90년대 초 중립학교 유무에 대한 의견 차에 따라 학원소요를 겪은 바 있는 광동학원은 93년 일면스님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불교중립학교로 정관과 설립 이념을 개정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운허 스님 유품전시회가 함께 개최된다. 이날 유품전시회에는 운허 스님의 훈장증, 독립유공자 대

“불교학교 정체성 확립계기”
통령 표창장, 발우, 가방, 현등사 사적 친필, 돌보기, 손저울, 회중시계, 벼루와 붓, 단주, 진필현관, 벼루와 붓 등 총 21점이 전시된다.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스님(봉선사 주지)은 “광동학원 2만 동문과 4천여 재학생, 200여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설립 이념을 고취하기 위해 큰스님 존상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광동가족은 스님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가르침을 되새겨 민족주체성이 확고한 세계화 역군을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운허 스님(1891~1980)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본말사 스님 2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인재 양성으로 민족의 앞날을 밝히기 위해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봉선사를 비롯한 봉영사, 수국사, 현등사, 흥룡사 등 5개 사찰에서 토지 약 45만평, 임야 1400여정보를 학교 설립기금으로 출자해 광동학교가 설립됐다.
광동학원은 광동중, 광동고, 광동여고 등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원우기자

청주·청원사암련회장 설곡스님 취임



제9대 청주·청원 사암련회장에 선출된 설곡 스님(대원불교 수도원 원장)의 취임식(사진)이 3월 21일 충북 청주시 대원불교 수도원에서 열렸다.
8대 회장이었던 이두 스님의 퇴임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전 회장인 이두 스님(관음사 주지)과 청주·청원 사암련회

수석부회장인 일봉 스님을 비롯해 지역 주요사찰 주지 스님들과 이원종 총목도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설곡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51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설곡 스님은 64년 청주 용화사 수도원에서 출가했으며 70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구 운흥사와 대만 홍법원장을 지냈으며 런던 연화사와 구미 영명사 주지를 역임했다. (043)256-2655
여수령 기자

서산 간월암 2년만에 산문 열어

기도처로 유명한 서산 간월암이 폐쇄 2년만인 3월 27일 개방됐다.
간월암 원운 스님과 서산시 김정부 총무국장, 간월도리 주민 대표 등은 3월 26일 간담회를 갖고 간월암을 일반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서산시의 간월암의 대립은 간월암이

1998년 인근 사찰 터에서 불법 영업하던 포장마차를 내보내고 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시작했다. 서산시는 가건물을 철거한 간월암을 불법시설물 설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간월암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2001년 3월 산문을 폐쇄했다.
김원우기자



추천의말
혜총스님 감로사 주지

상을 내지않는 빈틈없는 수행의 실천에도 철저합니다. 또한 방생법회나 삼천배 참회기도 때 관음회 회원을 중심으로 각종 경전을 범보시하면서 바른 불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수행에도 빈틈이 없어 도반들의 모범이 되면서도 결코 상을 내지 않는 불제자입니다.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現 '삼경그룹' 고문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퇴행 파동명상-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파동명상-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사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이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4월 2째주, 4째주

2002년 12월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을 단 한번의 파동명상으로 해결하다.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십 수년씩 기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영적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 시킬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영매자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자신의 보호령과 몸주신, 기타의 영적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